



[산업] '뜨거운 감자 화웨이 어떻게' 5G에 미래 건 하현희의 고심 05



[유통] 홈플러스 '풋살파크' 마트 옥상이 지역민 커뮤니티로 01



2019 수시 가이드

'특성화 전형' 산업체 3년 이상 근무자 189명 선발



명지대학교는 2019학년도 총 모집인원 3057명 중 수시모집에서 2268명을 모집한다. 수시모집에서는 논술 및 적성고사 전형이 없고,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면접고사 및 서류평가 등 별도의 전형없이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한다. 수시모집 모든 전형 중 합격자 학생부 교과성적 수준이 제일 높은 전형으로, 비교과활동 자료나 면접고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학생에게 적합할 수 있다.

학생부교과면접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5배수를 선발, 2단계 면접고사를 실시해 학생부 교과성적 70%와 면접고사 성적 30%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홍보대사. /명지대

합산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 전형을 통과한 경우 면접고사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면접평가는 성실성, 공동체 의식, 기초학업역량, 전공잠재역량 등이

평가되고, 면접위원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있는 태도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명지대 입시홈페이지의 면접고사 기출문항 자료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2단계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한 후 합격자를 선발한다.

한편, 2017년 신설된 명지대 미래융합대학은 이번 수시모집에서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 3년 이상 근무자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등졸 재직자전형'을 통해 189명을 선발한다.

/한용수 기자



장영순 입학처장



세종대 전경.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 여학생 첫 선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2019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약 61.6%인 1630명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크게 학생부 교과(학생부 우수자, 농어촌학생, 국방시스템공학, 항공시스템공학), 학생부 종합(창의인재, 고른기회, 서해5도학생, 사회기여 및 배려자, 특성화고교졸재직자), 논술우수자, 실기/특기(실기우수자, 예체능특기자) 전형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종대는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논술우수자 전형과 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지 않는다.

학생부 교과전형 중 학생부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 100%를 반영한다. 사정 방법의 1단계는 학생부 교과성적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 및 해/공

군본부 주관 전형으로 구성된다.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에서는 올해 최초 여학생을 선발 할 예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창의인재(475명)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가운데, 고른기회, 서해5도학생, 사회기여 및 배려자,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전형으로 구성되며, 각 전형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신중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교내활동 중심의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이후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논술우수자 전형은 392명(인문계열 132명, 자연계열 260명)을 선발하며, 논술고사성적 60%, 학생부 교과성적 40%를 반영해 총점을 산출한다. /한용수 기자



이동일 입학처장

수시서 934명 뽑아... "적성고사 전형 올해도 계속"



삼육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934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원 내 전형은 △학생부교과우수자 △교과적성우수자 △학교생활우수자 △MVP △사회기여 및 배려자 △학·석사통합과정 △신학특별 △예능인재 △실기우수자 전형이 있다. 정원의 전형으로는 △특성화고교 △서해5도 △농·어촌 △기회균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있다.

일반전형은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예체능을 제외한 전학과에서 학생부 100%를 반영해 선발한다. 아트앤디자인학과와 음악학과는 학생부 20%, 실기 80%를, 생활체육학과는 학생부 40%, 실기 60%를 반영한다. 학생부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



삼육대 전경. /삼육대

지 성적을 학년별 차등 없이 100% 반영한다. 특성화고교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은 국어·영어·수학·사회 또는 과학 중 3개 과목을 선택해 반영한다.

적성고사를 치르는 교과적성우수자전형은 올해에도 계속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60%, 적성고사 40%로 선발

한다. 적성고사는 국어와 수학 각 30문항씩 총 60문항을 1시간 동안 풀게 된다.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한용수 기자

정현철 입학관리본부장



정현철 입학관리본부장



한국외대 전경. /한국외대

입학전형 단순화... "내신보단 고교생활 충실도 중요"



성신여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586명(정원의 포함) 모집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학생부종합전형 내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을 학교생활우수자전형으로 통합, 입학전형을 단순화했다.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더욱 밀접한 연계를 위해 예체능실적우수자전형을 폐지했으며, 수험생의 다양한 특성과 장점을 반영하기 위해 논술우수자전형을 신설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인 학교생활우수자전형에서는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정성적으로 평가하고, 내신성적은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내신성적에 비례해 지원자의 선발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오



성신여대 전경. /성신여대

히려 지원자의 고등학교 생활 충실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종합 평가한다. 따라서 내신성적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비교과 영역까지 고려해 자신에게 알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교과우수자(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량적

으로만 평가한다. 내신성적은 90%, 출결은 10% 반영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올해 신설된 논술우수자전형에서는 총 100분 동안 계열별 논술고사가 치러진다. 인문계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국어와 사회과에 근거한 통합교과형 논술로 출제된다. 4~5개의 제시문을 읽고 2개 내외의 문항에 대해 각 800~1000자 분량을 서술한다.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거나 현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나 관점을 소개하는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단순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견해에 대한 비교우위를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한용수 기자

한용수 기자



윤진호 입학처장

작년보다 108명 늘린 2222명 뽑는다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108명 늘어난 2222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의 경우 서울 캠퍼스는 적용하지만, 글로벌캠퍼스는 반영하지 않는다. 교과 성적 환산시 세부 교과목 별 등급에 의한 환산점수와 원점수에 의한 환산점수 중 수험생에게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일반·고른기회 I·고른기회 II·고른기회 III)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학생부·자소서) 100%로 선발인원의 2~3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70%와 면접 30%의 비율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서류평가에서는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이 종합 평가되고, 면접평가에서는 공통 질문 없이 지원자의 개별역량 중심으로 전공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 등을 평가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으며 교사 추천서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논술전형(서울 442명, 글로벌 104명)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논술 70%와 학생부 교과 30%,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한다.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논술 70%와 학생부 교과 30%로만 선발한다.

특기자전형(외국어·과학·소프트웨어)은 외국어특기자(108명), 과학특기자(3명), 소프트웨어특기자(11명)를 선발한다. /한용수 기자



박지혜 입학처장